

#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과 언어공동체의 문제

김준영  
(서울대 철학과)

## 1. 들어가며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저서 『철학적 탐구』를 읽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자신의 저서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를 통해 발표했다. 이 책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의 “탐구”에 대한 정석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것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책에서 전개하는 회의적 역설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후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다. 크립키는 이 책에서 전개하는 논증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크립키의 해석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정석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의 화자를 “크립켄슈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크립켄슈타인”, 혹은 “크립키의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용어는 쓰지 않고 그냥 “크립키”라고 통칭할 것이다.

필자는 일단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그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회의적 해결책에 대비되는 직접적 해결책에 관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독자적으로 직접적 해결책을 전개하는 것은 현재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는데다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회의적 해결책에 대한 필자의 논의는 주로 언어 공동체와 관련하여, 규칙 준수를 위해 언어적 공동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필자는 회의적 해결책의 “삶의 형식”들에의 일치라는 측면에

서, 언어 공동체가 없어도 규칙 준수는 일어난다는 점을 역설할 것이다.

## 2.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sup>1)</sup>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을 한마디로 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의미 귀속 문장<sup>2)</sup> S에 대해서도, S를 참이거나 거짓이게끔 만들어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어떠한 의미 귀속 문장도 진리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크립키는 이 회의적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한다. 존스는 그동안 유한한 수의 덧셈을 해왔다. 따라서 존스가 직접 계산해보지 않은 더하기의 사례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크립키는  $68+57$ 이 그러한 사례라고 가정한다. 존스는 57보다 큰 숫자들을 사용한 덧셈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다. 이제 존스에게  $68+57$ 의 답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존스는 별 무리 없이 “125”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회의주의자는 이것의 답이 사실은 5라고 말할 수도 있다. 회의주의자의 설명은 이렇다. 과거에 존스가 ‘+’로 의미한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곱하기는 57 미만의 수들에 대해서는 더하기를 산출하고, 57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5라는 값을 산출하는 함수이다. 존스는 그 동안 57보다 작은 수들의 덧셈밖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로 의미했던 것이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알 수 없다. 만약 곱하기라면, “5”라고 대답해야 올바른 대답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회의적 역설이다. 이제 내가 ‘ $68+57$ ’과 같은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때, 내가 왜 다른 답이 아니라 그런 답을 말했는지에 관해선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sup>3)</sup> 이제 크립키는 가능한 대안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1) 이 부분은 Alexander Miller, *Philosophy of Language* 2<sup>nd</sup> editi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7, pp.165-175. 참조.

2) 의미 귀속 문장이란 어떤 언어적 표현 E에 의미 M을 귀속시키는 문장을 말한다.

3) 술 A.크립키,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남기창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p.47.

비판을 시도하는데, 그 대안들로는 과거 행위의 총체, 감각질, 어떤 특별한 종류의 정신적 상태, 오컴의 면도날<sup>4)</sup>, 성향주의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성향주의에 대한 비판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는데, 성향주의가 가능한 대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크립키는 성향이 의미의 규범성과 무한성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성향주의를 거부한다.

이제 크립키는 자신의 회의적 역설에 대한 회의적 해결책을 내놓는다. 회의적 해결책은 의미를 확정해줄 수 있는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sup>5)</sup> 다만 그럼에도 의미 귀속 문장이 어떤 조건하에서 발화될 때 그것이 주장될 수 있다는 ‘주장가능성 조건’(assertibility condition)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어떤 조건이란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속해있는 언어 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의미 귀속 문장 “존스는 ‘+’로 더하기를 의미한다”는 만약 존스가 ‘+’를 그가 속해있는 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 크립키는 언어 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회의적 해결책을 구성한 것이다. 화자가 어떤 표현을 언어 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체 성원들과 하나의 “언어놀이” 규칙 안에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즉 “삶의 형식들”(forms of life)에 있어서의 일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회의적 해결책은 결국 고립 언어<sup>6)</sup>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4) 이 부분은 밀러의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에 대한 크립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더하기와 곱하기 중 더하기가 가장 단순한 가설이기 때문에 선호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순성의 고려는 경쟁하는 가설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쟁하는 가설들이 무엇인지는 결코 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두 가설들이 진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가 ‘더 단순’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같은 책, pp.71-73.

5) 그렇기 때문에 회의적 해결책이다.

것이다. 고립 언어의 경우 언어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도 의미 귀속 문장에 대한 적절한 주장가능성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언어 공동체와 같은 규칙 준거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표현 E에 대해서 화자가 믿는 것과 표현 E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구분할 기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된 개인은 무엇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고립언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3. 언어공동체와 삶의 형식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직접적 해결책은 어떤 것에 대해 그 의미를 확정해줄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필자는 직접적 해결책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할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필자가 어떤 독자적인 직접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직접적 해결책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와 규칙 따르기의 문제만을 다루려고 한다.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은 어떤 언어를 그가 속해있는 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언어를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립키가 그 언어를 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삶의 형식들(forms of life)”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진행해보자. 어떤 언어 공동체 L이 있다. 그 언어 공동체 L은 어제까지 모든 성원이 ‘+’로 더하기를 의미하며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의사 c가 실수로 그 언어 공동체 L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에 자신이 만든 강

---

6) 고립 언어란 어떤 고립된 개인만이 사용하는 개인 언어를 말한다.

력한 정신 착란제를 흘려버리고 말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의사 c를 비롯한 L의 모든 성원이 그 수돗물을 마셨고, 하룻밤이 지난 오늘이 오자 언어공동체 L의 성원 전체가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sup>7)</sup> 그런데 이 정신 착란제는 매우 강력하지만, ‘+’로 더하기를 의미하던 것을 ‘+’로 곱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바꿔준다. 즉, ‘+’라는 기호의 의미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그대로이다. 이제 우리는 크립키의 주장에 따라 이 언어공동체 L의 성원 모두가 ‘+’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L의 성원 x는 ‘+’로 곱하기를 의미한다.”는 문장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언어 공동체 L은 ‘+’로 곱하기를 의미하면서 잘 살아갈 것인가? 사고 실험을 좀 더 진행해보자. 준상은 이 언어 공동체 L의 성원인데,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가게는 장사가 매우 잘되는데다 맛있는 김치로 소문이 나서 매일매일 김치를 새로 담가야 한다. 이날도 준상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배추를 사기위해 밭을 수 있는 창환의 도매상에 갔다. 준상과 창환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터라, 준상은 창환이 원하는 대로 강원도 고랭지 배추 87포기와 경기도 하우스 배추 98포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준상은 창환에게 영수증을 요구했고, 그 영수증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단가(원)	수량(포기)
강원도 배추	980	87
경기도 배추	950	98
합 계 (+)	5	5

창환과 준상은 이 영수증을 보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준상은

7) 이러한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크립키가 책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그가 가정하는 상황도 충분히 황당하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것이 더 불가능해 보인다는 비판은 더더욱 무의미하다.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겨우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배추 5개로는 자기 가게의 김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창환은 5원을 받아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이들뿐만 아니라, 언어 공동체 L 전체에서 나타났다. 결국 언어 공동체 L의 성원들은 일종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호 ‘△’를 도입하여 더하기를 의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8)</sup> 즉, 앞으로는 “L의 성원 x는 ‘△’로 더하기를 의미한다.”는 문장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실험이 보여주는 결론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분명해 보인다. 의미가 주장됨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은 크립키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공동체 성원 x는 기호 s로 m을 의미한다.”는 문장에서 기호 s와 의미 m이 적절히 연관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공동체 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기호 s와 의미 m을 연결시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위의 사고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형식들”과 일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삶의 형식들과 일치하는 것은 언어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인다. 사고실험을 통해 추론할 수 있듯이, “화자의 행동과 공동체 성원들의 행동들 간의 일치”이외에도 “화자의 행동과 세계의 구성성분들 간의 일치”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크립키의 생각과는 달리 언어공동체가 없어도 규칙 따르기는 가능하다는 귀결이다. 전자를 결여 하더라도, 후자를 통한 규칙 준수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4. 크루소의 언어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사고실험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창환과 준상이 그 둘만을 성원으로 하는 언어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9)</sup> 따라서 우리는 언어

8)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이 결코 더하기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9) 언어 공동체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지, 그 중 몇 % 이상이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한 크립키의 자세한 설명은

공동체 없이도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철학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크루소 논쟁”을 따라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크루소가 언어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은 에이어와 러시 리 사이의 논쟁에서 시작되었다.<sup>10)</sup>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이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크립키는 그의 책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sup>11)</sup> 여기서 크루소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크루소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인간의 언어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이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크루소는 원래 영어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이미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가 의미 규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마티니치는 설령 로빈슨 크루소라 하더라도, 고립된 그 순간부터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sup>12)</sup> 마르티니츠의 주장은 결국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 규칙 따르기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고립 언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언어 공동체가 없이도 특정한 종류의 규칙 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필자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마티니치의 주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

없다.

- 10) Ayer, A. J, “Can there be a private language?”, 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28(1954), pp.63-76., Rhees, R, “Can there be a private languag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28(1954), pp.77-94.
- 11) 솔 A.크립키,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남기창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p.106, p.178
- 12) Martinich, ed, Philosophy of Language, 3<sup>rd</sup> edition(Oxford: 1996), p.496. 마르티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음 두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하나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자란 로빈슨 크루소가 “저기에 코코넛이 있다.”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면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언어를 가질 수 있는지 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비트겐슈타인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할 것이며 그래서 오직 한 사람에게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는 언어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부분은 남기창, “규칙 따르기의 여러 유형”, 철학적 분석 12, 2005, p. 87.에서 재인용.

다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자.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서 혼자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줄만한 것을 찾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물고기 잡기를 잘 못하는 터라 며칠을 쫓쫓 굶은 크루소는 우연히 숲에서 처음 보는 식물 p를 발견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그 식물 p를 섭취한다. 그런데 그 식물 p는 크루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췄다. 맛도 좋고, 그 섬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크루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크루소는 앞으로 이 식물 p를 ‘베지터’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크루소는 그 후 베지터가 많은 지역, 베지터를 요리하는 법 등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해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루소는 우연히 환각 식물 c를 먹게 되었는데, 그 환각 식물 c는 ‘베지터’라는 기호를 가진 대상을 ‘도도리안’이라고 부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 때문에 크루소는 이제 이 식물을 ‘도도리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크루소는 그 다음 날 역시 평소와 같이 식물 p를 채취하고, 요리해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날의 일기를 쓴 후 예전 일기들을 잠시 살펴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전의 일기들에서는 ‘베지터’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크루소는 이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다만 문맥 상 그것이 식물 p를 의미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고실험에서 우리는 “크루소가 ‘베지터’로 식물 p를 의미한다.”<sup>13)</sup>라고 적절하게 주장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크루소가 ‘도도리안’으로 식물 p를 의미한다.”는 문장 역시 적절하게 주장할 수 없다. 언어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 귀속 문장이 주장가능성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크루소가 식물 p를 ‘베지터’로 부르든, ‘도도리안’이라 부르든 의미가 적절하게 주장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루소에게 식물 p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꼭

13) 이 경우는 사실 ‘지칭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칭관계에 관한 크립키의 다른 논문 “name and necessity”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의 회의적 해결책을 완전히 정합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에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필요한 어떤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의미에 대한 어떤 환각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크루소가 식물 p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크루소는 생존이라는 “삶의 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물 p를 필요로 하지만, 이 식물 p의 언어적 의미는 불필요하다. 첫 번째 사고 실험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로 곱하기를 의미하는지, 혹은 ‘△’로 더하기를 의미하는지와 같은 문제는 언어 공동체를 도입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는 ‘+’로 더하기를 의미하는 공동체나 ‘△’로 더하기를 의미하는 공동체를 모두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기호로 더하기를 의미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하기 함수이다. 곱하기 함수로는 우리의 수많은 “언어놀이”들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기호를 사용하든 간에,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야만 삶의 형식들에 있어서의 일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삶의 형식들과의 일치”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설령 크루소라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함수일 것이다. 우리가 곱하기를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sup>14)</sup>

- 14)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만한 반론이 크립키의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반론은 이와 연관된 한 가지 제안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곱하기 함수는 내가 ‘+’를 위해 수용한 규칙들 중 일부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가령, 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도록 정의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의 해석에서 제외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자연수에 대해선 더하기가 내가 수용하는 특정 방식들 - 가령, +에 대한 ‘귀납 방정식’:  $(x)(x+0=x)$  그리고  $(x)(y)(x+y)=(x+y)$ ” 여기서 스트로크 또는 대시는 계승자를 나타낸다. 이 방정식은 때때로 덧셈의 ‘정의’로 불린다-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함수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칙들에서 사용된 다른 기호들(보편 양화사, 등식 기호)이 오직 유한한 수의 사례들에만 적용되었으며 그것들은 ‘+’의 비-표준적 해석과 유사한 비-표준적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중략-어쨌든 이 반대는 다소 지나칠 정도로 복잡하게 되었다. 수학자가 아닌 우리들 대부분은 인용된 형태의 명백하게 구성된 법칙들을 모르더라도 ‘+’기호를 완전히 잘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를 통상적인 확정적 의미를 갖고 사용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적용할 때 무엇이 우리를 정당화하는가?” 술 A.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 a가 표현 E로 의미 M을 의미한다.”는 문장은 화자 a가 속해있는 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 E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 언어공동체가 없을 경우 표현E와 의미M을 연관관계를 적절히 주장할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크루소는 물론이고 영어권 사회에서 살아온 로빈슨 크루소 역시 어떤 표현E와 의미M의 연관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언어공동체가 없다면 회의적 역설에서 그를 구출해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화자의 행동과 세계의 구성성분들 간의 일치”는 별개의 문제다. 크루소는 표현 E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의미 M과 적절한 삶의 형식과의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혹 공동체 전체가 정신 착란을 일으키더라도, 바뀌는 것은 표현 E와 의미 M의 연관관계일 뿐 의미 M과 삶의 형식의 연관관계는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크립키의 주장처럼, 표현 E와 의미 M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행동과 공동체 성원들의 행동들 간의 일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크립키는 “화자의 행동과 세계의 구성성분들 간의 일치”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언어 공동체가 없더라도 세계와의 일치를 통해 특정 종류의 규칙 준수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크립키의 주장과 달리, 언어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립 언어 역시 가능할 수 있다. 남기창 역시 그의 논문에서 고립적인 개인도 규칙 따르기가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비록 그가 혼자서 살아온 크루소<sup>15)</sup>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

크립키,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남기창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p. 40.

우리가 수학적 법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기호를 잘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 기호가 가장 기본적인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형식에 어떠한 일치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 15)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 크루소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크루소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인간의 언어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 가상의 크루소이다.

그가 관찰하고 있는 공적인 대상을 그의 규칙 따르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이 크루소가, 만약 그가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규칙을 따르는 방식일 것이다.<sup>16)</sup>

크루소는 주변의 공적인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그의 규칙 따르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크루소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sup>17)</sup> 그런데 남기창이 공적인 대상을 규칙 따르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공적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sup>18)</sup> 외부 관찰 대상이야 문제없이 포함되겠지만, 더하기와 같은 수학적 대상들도 공적인 대상으로 봐야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프레게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공적인 어떤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에 대한 어떤 직접적 해결책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 같다. 크립키가 이러한 결론을 거부할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 5. 마치며

이상으로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을 살펴봤다.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은 의미에 대한 회의주의란 점에서 다른 어떤 회의주의보다도 강력하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담보해줄 사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또한 그의 회의적 해결책 역시 강력하다. 직접적인 진리 조건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

16) 남기창, “크루소의 언어는 사적 언어인가?” 박영식(위음), 『언어철학연구 I』, 현암사, 1995.

17) 물론 그가 우리와 같은 형식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18) 그가 염두에 둔 것이 고립 언어와 사적 언어의 구별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사적 언어는 고립 언어의 특별한 사례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립언어가 불가능하면 사적언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사적언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립언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적언어를 거부하면서도 고립언어는 인정할 수 있다.

에, 다른 직접적 해결책들이 가지고 있는 난점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회의적 해결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의미 귀속 문장은 그 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때, 오직 그 경우에만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논증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의미 규칙 따르기를 위해 반드시 언어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표현 E와 관계없이 의미 M이 세계의 구성성분들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음을 몇 개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즉,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립언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우리를 또 다른 어려움에 이르게 하는 것 같다. 언어 공동체가 없이도 규칙 따르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일정한 형식의 삶의 형식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다 그 나름의 삶의 형식에 따라서 살고 있다. 남기창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공적 대상을 그들의 규칙 준거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들 모두가 언어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트겐슈타인의 “만약 사자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sup>19)</sup>”라는 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지만, 직접적 해결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위와 같이 우리의 결론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회의적 해결책에서 고립 언어의 불가능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것, 언어 공동체 없이도 규칙 준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

19)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II, xi, p.223.

## 참고문헌

- 남기창, “크루소의 언어는 사적 언어인가?” 박영식(역음), 『언어철학 연구 I』, 현암사, 1995.
- 남기창, “규칙 따르기의 여러 유형”, 철학적 분석 12, 2005.
- Ayer, A. J, “Can there be a private language?”, 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28(1954),
-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책세상. 2006
- Alexander Miller, 『Philosophy of Language』 2<sup>nd</sup> editi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7.
- Martinich, ed, Philosophy of Language, 3<sup>rd</sup> edition(Oxford: 1996)
- 솔 A.크립키,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남기창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 Rhees, R, “Can there be a private languag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28(1954),